

베이징박람회 한국정원 관리 ‘부실’

순천시 11억 투입 조성...상주직원·편의시설 등 전무 체험용 한복 등 이물질 범벅...관람객들 “국격 없었다”

순천시가 중국 베이징세계원예박람회 장소에 조성한 한국정원이 관리부실과 홍보 부족 등으로 관람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더욱이 다른 나라 정원과 비교해 규모나 편의시설이 형편없어 실망을 안은 채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현지 방문했던 한국인들이 전하고 있다.

18일 순천시와 베이징세계원예박람회를 다녀온 한국인들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 4월 시비 11억원을 들여 중국 베이징 연경구 세계원예박람회장내 한국정원을 2,065㎡ 규모로 지었다. 순천을 상징하는 정자 연자루와 연못, 홍보부스를 마련했

다. 홍보부스에는 홍보관과 체험관이 있다. 순천시는 안내문을 통해 한복 입기와 민속놀이 체험, 부채 만들기, 청사초롱 만들기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현지 방문한 이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최근 한국인 사업가 A씨는 원예박람회 회장에 한국관이 조성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중국인 지인들과 박람회장 찾았다가 어이없는 모습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관람객들이 봄비는 토요일 오후임에도 홍보관 한쪽 체험관에는 종이예다 중국어로 ‘작업구역이므로 들어오지 마세요’란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관리인으로 보이는 여성은 중국인이었다. 한국어는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개막한 지 1년 만에 체험용 한복은 곳곳에 흠과 이물질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다. 자리를 잡고 있던 여성은 한국에 대한, 한국정원에 대한 어떠한 홍보도 하지 못했고 방문객들에게 스탬프만 찍어 주면 된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달리 인근에 조성된 북한관의 경우 규모는 물론 에어컨까지 갖춰져 있어 관람객들로 북적였고 중국어와 영어로 연신 북한에 대해, 북한의 특산물에 홍보해 대조를 보였다.

사업가 A씨는 “한국정원이라고 해서 방문했는데 중국인 친구들에게 차마 열감을 들 수 없었다. 박람회장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로 넘쳐나는데 한국

관은 한산했다. 명색이 한국관인데 이렇게 관리하고 홍보할 바에야 오히려 철거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정원 1호 순천만정원으로 이름난 순천시가 한국을 대표해 참여했는데 컨테츠나 운용 면에서 다른 참가국 수준과는 한참 동떨어진듯해 안타까웠다. 한국의 국격은 아예 없었다”고 덧붙였다.

순천시는 베이징세계원예박람회 한국정원 운영과 관련해 지난 5월 25일 한국정원 개막식 때 단 한 차례 시장과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머물렀을 뿐 이후 방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 순천만관리센터 담당자는 “베이징세계원예박람회 조직위와의 협조 아래 관리하고 있으나 사실상 한국정원과 홍보부스 운용에 어려움이 많



사업가 A씨가 최근 본보에 보내온 베이징세계원예박람회 한국관 홍보부스 모습. 왼쪽 체험관은 셔터가 반쯤 내려와 있고 오른쪽 홍보관에는 현지에서 채용된 중국인 여성이 홀로 부스를 지키고 있다.

다. 직원도 상주하지 않고 현지 인력을 박람회 조직위로부터 위탁받아 월급을 주고 운용하고 있다. 부채 만들기, 청사초롱 만들기 체험은 6월 말까지 무료로 운영했으나 지금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한복 입 어보기나 민속놀이 체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람객들의 민원이

있어 8월 중순 현재, 연자루와 연못의 정결 문제는 해결됐다. 9월 초에 현지로 직원들이 가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한국정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이징세계원예박람회는 지난 4월 29일 개막해 10월 7일까지 열린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순천시의회는 최근 KBS가 발표한 비상경영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순천 시청 앞에서 순천방송국 폐쇄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순천시의회 KBS순천방송국 폐쇄 철회 촉구

순천시의회가 최근 KBS가 발표한 ‘KBS 비상경영계획 2019’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순천시청 앞에서 KBS 순천방송국 폐쇄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KBS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순천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KBS 지역방송국 구조 조정안은 지역의 다양한 철학이 담긴 목소리를 배제하고 지역의 인로를 차단하는 행태”라며 깊은 걱정과 우려를 표했다.

시의회는 “KBS 순천방송국은 전남 동부권에서 연간 100억원 가량의 수신료를 받아 수신업의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가 경영손실이 난 것은 이 수신료가 본사의 경영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급까지 쓰여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공영방송인 KBS가 ▲위의 지역방송을 살리기 위한 지역민과의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 ▲지방방송국 폐쇄 계획을 철회할 것 ▲지역방송국의 TV 로컬 기능 확대방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고흥 귀농인 안정 정착 도모 창업자금 지원대상자 확정

고흥군이 최근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대상자 선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51명, 99억5,200만원의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대상자는 6월 선발모집 공

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7월 현장조사를 거쳐 3차 외부전문가 대면심층 심사로 최종지원 대상자로 확정됐다.

고흥군은 9월부터 귀농인 전기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숙박, 교육, 체험 등 ‘고흥귀농귀촌 행복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기 교육생 모집중이다. 신청대상자는 도시민 중 고흥군으로 이주할 예비귀농인 및 희망자, 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 중 5년 이내면 신청가능하다.

【동부취재본부=진종운 기자



광양시 광영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 No Japan 보이콧 캠페인’을 펼쳤다.

광양 광영동 주민자치위 ‘노 재팬 보이콧’

광양시 광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영동 일원에서 ‘나라사랑 No Japan 보이콧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광영동 주민자치위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박중순 광영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보복규제를 중단할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시민들의 불매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보성 의병정신 함양 활동 지속 추진

보성군이 지난 16일 전남도 주관의 남도 의병 역사공원 대상지 선정 공모 연기 발표와 상관없이 의병정신 함양과 애항심 배양 등 관련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전남도 용역사인 광주전남연구원 이 같은 날 대상지 선정절차 연기를 통보해오며 따라 보성군은 전남도의 연기 취지를 존중해 결정을 수용하고, 담당히 의병공원 유지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도 의병 역사공원 유치와 더불어 보성군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를 그동안 잊고 있던 우리 조상들의 구국충혼에 대한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 애항심을 키움으

로써 지역 내 갈등해소, 군민들의 공동체 정신 함양 등 군민 화합과 단결의 계기를 만들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남도 의병 역사공원 공모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단결한 보성군민의 의지와 실행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됐고, 이름 없이 잊혀졌던 의병들이 재평가를 받아 현대인들에게 그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어 “공모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온 군민과 함께 홍보활동, 각종 선양사업 등을 전개해 의항의 고장인 바로 우리 보성임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오늘 여순사건 세 번째 공판

유족 장모씨 96세 모친 출석...생생한 증언

여순사건 재심재판의 세 번째 공판이 19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법정 316호서 제1회사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재심재판은 1948년 10월 여순사건이 발발하고 국군이 순천을 탈환한 직후 장모씨 등 3명이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한 건에 대해 유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진행된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청구 7년여 만인 지난 3월 21일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번 재심재판이 열리게 됐다.

지난 4월 29일과 6월 24일에 이어 열리는 이번 세 번째 공판은 ‘공소기각’이 아닌 정식 유죄 판결이 내려지느냐의 여부가 눈길을 모은다. 지난 6월 24일의 두 번째 공판 이전에 김영록 전남지사와 시민, 정치인 2,000여명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가 재판부에 전달됐다. 이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의 대응이 유족

회·재심대책위·시민단체들의 주요 관심 사항이다.

검찰은 지난 2차 재판에서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직접 찾는 일과 사실조치 신청을 병행하고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공소사실 복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차 재판에서 이런 검찰의 의지가 진정성 있는 결과를 낳을 것인지도 주요 관심사항이다.

특히 처음 재심청구를 했던 세 명의 유족 중 유일한 생존자인 장모씨(73)는 노환으로 전복 완주의 한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96)가 이날 재판정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어머니께서 순천역무원으로 근무하다 집안군에 붙잡혀 사형당한 아버지의 22일 간의 상처와 고통의 날들을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어머니께서 재판정에서 그간의 아픔을 생생하게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순천대 이상길 박사 발전기금 1천만원 약정

순천대 수목재단센터 이상길 박사가 최근 대학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을 약정했다.

2017년 3월부터 순천대 수목재단센터 외래임상의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길 박사는 고영진 총장의 수목재단센터장 시절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인연으로 이번 기탁이 진행됐다.

이날 기탁식에서 이상길 박사는 “고 총장님께서 취임 후 체감하신 순천대의 어

려운 상황을 저 또한 듣게 돼 이번 기탁을 결심했다”며 “작은 힘이라도 더해 현장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우정을 이렇게나마 나누고 싶고, 이후 기회가 된다면 기탁을 계속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길 박사는 전북대 농생물학과와 서울대 농생물학과 석사과정을 마친 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 연구관으로 30년 봉직 후 명예 퇴직했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클릭! 고흥 소식



보성읍행정복지센터 친절맞이 운동

보성읍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전직원이 함께 친절서비스를 다짐하는 ‘친절 맞이 운동’을 진행했다. 친절 맞이 운동은 민원인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해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모범이 되는 친절

행정을 실천, 군민중심의 적극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실시됐다. 센터는 매주 목요일 근무 시작 전 직원이 참여해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고흥 독립운동가 활동 사진 전시회

고흥군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군청 1층에서 독립운동가 활동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고흥군지회 주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남

도지회에서 사진 등을 후원했으며 일제의 국권침탈로 억압 받고 있던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활동사진 30여점을 전시한다. 【동부취재본부=진종운 기자



순천 주암면 어르신 맞춤 안경·소화기 지원

순천시 주암면은 최근 어르신 맞춤형 안경전달과 구산마을 등 5개 마을 전 세대에게 화재경보기 150개, 가정용 소화기 150대를 설치했다.

이번 행사는 월드쉐어가 후원하고 주

암면 주민자치회, 오랜즈중앙점, 제일대 화동이봉사대가 참여했다.

황태주 주암면장은 “지역민의 복지를 위한 활동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